SU-D49

신장이식에서 BKV DNA PCR 검사법의 활용

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[1],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[2], 진단검사의학과교실[3], 외과학교실[4]

김수현[1] · 윤혜은[2] · 오은지[3] · 박순철[4] · 최범순[2] · 오동진[1]
양철우[2] · 김용수[2] · 문인성[4] · 유석희[1] · 김석영[2] · 방병기[2]

The Role of Serial BKV PCR Assay in Kidney Transplantation

Su Hyun Kim[1], Hye Eun Yoon[2], Eun-Jee Oh[3], Sun Cheol Park[4], Bum Soon Choi[2]
Dong Jin Oh[2], Chul Woo Yang[2], Yong Soo Kim[2], In Sung Moon[4], Suk Hee Yu[2]
Suk Young Kim[2] and Byung Kee Bang[2]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[1]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,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[2]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,
Department of Diagnostic Medicine[3]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,
Department of Surgery[4]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

배 경 : BK 바이러스 신병증은 신장이식 후 이식신기능부전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며 면역억제 정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. 이 연구는 이식 후 PCR 검사법을 이용하여 BK 바이러스의 자연 경과를 알고자 시행하였다.
방 법 : 강남성모병원에서 2006년 이후 신이식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식전, 이식 후 1주, 2주, 3달, 6달, 9달에 BKV DNA PCR 검사를 각각 소변과 혈청에서 시행하였다.
결 과 : 38명의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식 후 평균연령은 41세 (22- 58세) 였으며 HLA 불일치 정도는 3 (1- 6) 이였다. 일시적인 BK 바이러스뇨증이 이식전, 이식 후 1주, 2주, 3달, 6달, 9달에 5.3%, 10.5%, 18.4%, 15.8%, 13.2%, 5.3% 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. 또한 FK506 로 치료한 군에서 의미있게 BK 바이러스뇨증이 증가하였다 (p=0.029). BK 바이러스혈증은 이식 후 6개월안에 4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면역억제재량을 감량하면서 관찰한 결과 바이러스혈증이 감소하거나 소멸되었고, 신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없었다. 관찰기간동안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BK 신병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없었다.
결 론 : BK 바이러스뇨증과 바이러스혈증은 신이식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면역억제재의 감량으로 감소하였으며 DNA PCR 검사법은 면역저하 정도를 반영하는 유용한 검사법으로 사료된다.

Key Words : BK 신병증, 이식, 이식신기능부전
BK nephropathy, Transplantation, Graft failure